

전남 석유화학·철강산업 침체…근로자 지원 인간힘

전남도·여수시, 실직·위기 2800여명에 1인당 150만원 지급
심리 안정·주거비·취업성공플러스 지원…신규채용 지원금도

전남도가 도내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여수지역 일용직 근로자 수는 9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3000여명 가량 급감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일부는 충청, 울산 등지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전남도는 우선 지난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국비 70억원을 투입해 고용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총 예산 78억원을 들여 석유화학 산업 실직자 및 위기근로자에 1인당

150만원을 지급, 총 2800여명(5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2년 내 석유화학업종 관련 기업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한다.
또 근로자 안심 패키지 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근로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 일용·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 등 40만원을 7000여 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이밖에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150만원·210명), 기숙사 입차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까지 진행한다.
전남도는 위기근로자 지원 외에도 별도로 4월부터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석유화학 및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1인 최대

40만 원의 건강복지비(건강검진비·피복비·체육활동비 등)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지원금(근로자 200만원·기업 60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지원을 바라는 근로자 및 기업은 전남여수산업융합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지원 대상 860명 중 556명이 신청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여수 석유화학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 등이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며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다시 살아나 고용 안정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여수시가 석유화학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순사전 진상규명 지금이 적기다

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국가 차원 위령사업 추진 등

전남도는 8일 “여·순사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인물로 재구성하며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 추진에 매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은 여·순사전 발발 이후 7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

은 상처인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여수를 찾아 여순사건에 대해 “근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 맞춰 여순사

건 해결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18년 역대 도지사 최초로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했고,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2024년 개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여·순사전 유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전 중앙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정상 구성해 국가 차원의 위령 사업을 추진 등의 필요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4일 열린 2025 전남도 홍보 아카데미에서 전남도 관계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AI·빅데이터 시대…대도민 홍보 어떻게 할까

도, 공무원 대상 홍보 아카데미

전남도는 지난 4일 홍보 담당 공직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도 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도민 홍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언론관계 정립, 정부광고 매체전략 수립, 누리소통망(SNS) 활용 등 실무에 필요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위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전문가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시군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로 다짐했다.
김규용 전남도 대변인은 “홍보는 단순히 알리는

일을 넘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전략적 활동”이라며 “홍보가 잘 이뤄져야 소통이 원활해지고, 중앙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아카데미가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돼 도정 홍보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년 시·군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해 대도민 소통과 홍보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제 7회 섬의 날 행사’ 여수서 개최

2026년 8월 6~9일

‘제 7회 섬의 날 행사’가 여수에서 열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제 7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2026년 8월 6일부터 4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린 예정이다.
행사는 정부 기념식과 지자체 홍보 전시관, 해양레포츠 체험, 섬주인 대동제, 섬마을 민속촌, 금오도 비렁길 트레일링 등으로 진행된다.

여수는 교통 접근성, 숙박·관광 인프라, 국제행사 개최 경험, 2026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효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함께 위치하면서 3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다.
8월 8일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김지를 기자 dok2000@

도 ‘취약지 개조사업’ 국비 346억 확보

내년부터 20개 마을 지원

전남도는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20개 마을이 선정, 국비 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72개 마을이 신청, 지방시대위원회는 서면심사와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102개 마을(농어촌형 85·도시형 17)를 선정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나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과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노후 주택이나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2026년부터 최대 5년간, 예산(농어촌형 마을 23억원, 도시형 마을 4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시 컨설팅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선 총 199개 마을이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100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고, 99개 마을은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중년 구직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28일~8월 1일 시설관리분야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신중년 구직자를 위한 시설관리직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전기·승강기·공동주택 시설물 점검 등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가 소속 강사진이 맡아 실무 중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전남에 거주하거나 전남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64세 신중년 구직자라면 오는 22일까지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와 목포 중앙내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제공되며,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도 지원된다.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설립 이후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지원, 취업상담,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출상담 기업 모집

31일까지 푸드테크 등 3개 분야…전남 기업 참가비 ‘반값’

전남도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장 내 부스를 운영하고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기간에 마련되는 케이푸드(K-Food) 산업관과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들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목포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박람회 기간 마련되는 케이푸드 산업관의 경우 푸드테크와 미식,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시·판매·홍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운영

된다.
산업관 참여 희망 기업은 푸드테크와 케이푸드, 미식인(人)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신청하면 된다. 전남지역 기업에게는 참가비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무국은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중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의 경우 9월 중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10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과 전남도 누리집(고시공고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지를 기자 dok200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88618	1	북구 경열로233번길 19 주차장,계단실,1,2층각 805.33㎡ 제시외 창고등96.3㎡ [건물목상제시외건물소재,매각포함]		3,140,000,840 3,140,000,840	일괄매각, 목록1속박시설, 1층:주차장 및 계단실, 2층:객실 [20개실, 관리실등] 토이용중
		북구 유동 105-1 552.4㎡	대		
		동소 105-3 96.2㎡	대		
		동소 105-4 269.1㎡	대		
		동소 105-9 92.6㎡	대		

● 공고된 부동산의 연세 표시는 실세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

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7. 23.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7. 30.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 ① 입찰방정에 비추면 기일입찰표에 사전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목세와 지방공과세를 납부한 후 등목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목세영수필증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자관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타당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짜부터 먼저 주된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망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일반민간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 [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보증금 미납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소문본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된 물건종류,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정정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경성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추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